

Pool *
플

2011 풀 프로덕션
2011 Pool Production

백지에서부터
From Blank Pages

구동희 노재운 박보나 임민욱
정윤석 데보라 켈리 브록 앤드류
알리샤 프랑코비취

Brook Andrew Alicia Frankovich
Deborah Kelly Jung Yoon Suk
Donghee Koo Minouk Lim
Bona Park Rho Jae Oon

하얀 종이가 옥색으로 노란 하드롱지가
이 세상에는 없는 빛으로 변할 만큼 밝다
시간이 나비모양으로 이 줄에서 저 줄로
춤을 추고
그 사이로

4월의 햇빛이 떨어졌다.
이런 때면 매년 이맘때쯤 듣는
병아리 우는 소리와
그의 원수인 쥐 소리를 혼동한다.

어깨를 아프게 하는 것은
노후의 미덕은 시간이 아니다
내가 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개울과 개울 사이에
하얀 모래를 골라 비둘기가 내려앉듯
시간이 내려앉는다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두통의 미덕은 시간이 아니다
내가 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바다와 바다 사이에
지금의 3월의 구름이 내려앉듯
진실이 내려앉는다

하얀 종이가 분홍으로 분홍 하늘이
녹색으로 또 다른 색으로 변할 만큼 밝다
- 그러나 혼색(混色)은 흑색이라는 걸 경고해 준 것은
소학교 때 선생님...

“백지에서부터” (1962. 3. 18) 전문
故 김수영(1921 - 1968)

비영리 사단법인 아트 스페이스 풀(이하 “풀”)은 겨울과 새해를 준비하는 프로젝트로 국제기획 연계 전시 《백지에서부터》를 선보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혼돈과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시대상을 파국, 종말, 시작, 공백 등의 다각도의 함의가 가능한 ‘백지상태’로 제안하고 이에 대한 8명 작가의 대응과 극복 방안을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전시는 풀의 디렉터이자 독립기획자인 김희진과 호주 퀸즈랜드 아트 갤러리의 큐레이터 루벤 키한의 기획협업으로 서울과 시드니, 베를린 등지에서 활동하는 작가 8인을 초청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백지상태’에 대한 단초는 60년대 초 쓰여진 한국의 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62년에 쓰여진故 김수영의 시 “백지에서부터”는 개도국 탈피 행보의 박차를 가하던 당시 한국의 조악한 미래 비전과 혼미한 해방정국의 극단적 대조 속에서 시인이 느꼈던 혼돈과 흥분, 좌절을 동시에 드러내는 시입니다.

*하얀 종이가 분홍으로 분홍 하늘이
 녹색으로 또 다른 색으로 변할 만큼 밝다
 - 그러나 혼색(混色)은 흑색이라는 걸 경고해 준 것은
 소학교 때 선생님이...*

*“백지에서부터”(1962. 3. 18) 중에서
 故 김수영(1921 - 1968)*

시인은 “어깨를 짓누르고” “머리를 아프게” 하는 현실과 일상의 고통을 토로한 뒤, “세상에는 없는 빛으로 변할 만큼” 밝은 빛을 희구합니다. 그러나 그 백지같이 밝은 빛 속에서 계속 변모하는 색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색의 정체를 자문합니다. 그가 목격한 빛은 무엇이었고, 시인은 그 빛에서 어떤 전환적 극복의 가능성을 보고자 했을까. 시인은 “혼색은 흑색”이라던 소학교선생님의 경고를 반박하는가 아니면 그에 혼용된 자신을 발견할 뿐인가. 본 프로젝트는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없는 “백지” 상태를 비워 남겨둔 60년대 어느 지성인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4. 19혁명으로 시작된 한국의 60년대는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한 정진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요구가 들끓던 시절입니다. 당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전환의 산통처럼 지난 한 해에는 어떤 문명이 패러다임 전환 직전의 막바지 고비를 넘기는 듯한 각종 재앙과 종말의 징후들이

회자되었습니다. 구체적 발발부터 이에 따른 동반 생명체의 대량 살처분,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 폭발부터 잇단 종말론과 UFO출현설, 출산을 저조와 청년 자살률 급증, 글로벌 투자금융자본위기 등의 인재와 자연재해들이 여러 층위에서 문명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었습니다. 불확실하고 모호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선거정국에서 크고 작은 정경유착의 음모들이 되살아나는 가운데, 동시대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무한경쟁의 낭떠러지 끝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이퍼 액션과 자기 함몰적 회의주의가 극단적으로 교차하는 저변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혼돈, 불안, 공포와 같은 심리정치학적 우울증과 무기력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김수영의 표현처럼 가히 “흑색”이라 이름만한 혼탁한 동시대의 형국에서 어떤 비전은 고사하고 비전에 대한 주체적 입장과 그 구현에의 의욕, 의지 자체를 회복할 수 있을까. 불확실한 미래와 혼탁한 현실이 막다른 골목에서 정면충돌하고 있지 않은가. 예술은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백지에서부터》는 위와 같이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 구체적 답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들의 다양한 해석과 대응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시대의 우울과 혼돈을 어떤 방향으로 선동, 치유하기보다, 다각도로 개방된 의견들 가운데 은연중에 수렴되는 방향성을 발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백지에서부터》에 초대된 작가들은 신체의 원초적 운동 에너지를 복구하는 적극적 수행성과 개방적 사고방식에서 여전히 비전 수립에 대한 가치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전시에는 혼돈과 갈등에서조차 생산적인 야성을 추출하려는 움직임들로 가득합니다. 메마른 인공연못을 더듬으며 수맥을 찾거나(구동희), 옹도 폐기된 빗물펌프장에 잠입한 젊은이들이 현장에서 수습한 도구들과 목소리, 소음을 섞어 즉흥 라이브 노이즈 퍼포먼스를 펼칩니다(정윤석). 마루 바닥에서 버둥거리는 발레리나의 영상 옆에 어깨로 힘겨루기를 하는 사람들의 영상이 병치되는 가운데 모터가 걸린 듯 일정한 점프 모션을 반복하는 사람의 실제 라이브 퍼포먼스를 삽입하여 사람들 간의 단절된 운동에너지가 순환, 전이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알리샤 프랑코비취). 수행성은 개인이 일상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보다 개별적인 일의 층위에서 실행과 나눔의 형태를 띄기도 하는데, 작가 박보나는 전시라는 맥락을 활용하여 테이블과 김밥, 테이블보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 전달합니다. 목공소, 김밥집, 옷수선집에서 행한 사소한 ‘노하우’의 구술 인터뷰를 윤색

없이 책에 담아 전달하는 작가의 행위는 지식 서열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정보의 가치를 일깨우는 노력이면서 동시에 직장생활 중에 매몰되는 개인의 생존을 추스리는 방편을 도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책상, 김밥, 테이블보는 전시 오프닝이라는 사회적 형식에 의례적으로 등장하는 기능적 요소들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의식주 요소를 지시하는 기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통제 불가능한 물리적 환경에 대해 느끼는 황망한 단절감과 혼돈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몇몇 작가들은 의식의 세계에 주목합니다. 데보라 켈리는 헤테로토피아적인 신화의 원형적 모티브들을 발굴하여 그에 담긴 원초적 야성 에너지와 수평적 개방성을 주목합니다. 작가는 호주 원시종교에서 여성의 원형적 모티브로 전해오는 동식물의 이미지들과 신체 이미지 조각들을 오랜 기간 수집하여 자동연상적인 방식으로 콜라주하며 다양한 미지의 생명체를 만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상영되는 작품은 콜라주된 혼종 생명체들이 행진하고 교배하며 급기야 서로 잡아먹으며 카니발 의식을 치르는 듯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사람과 동식물이 뒤죽박죽 혼성된 디스토피안 판타지는 생명체 간의 위계질서와 역할을 조롱하는 전복적 해방감과 함께 아나키한 애니미즘의 혼성에너지를 극대화시킵니다. 브록 앤드류는 호주 토착민들에게 일종의 서낭당처럼 모셔졌던 나무에 새겨져 있던 빗살무늬 문양을 전용하여 이를 동시대의 이질적인 맥락에 과감하게 삽입시키는 다양한 그래픽 설치작업을 해왔습니다. 이국주의를 이용한 장식적 재현 태도와 이것의 격렬한 상품화를 경고하듯이 그는 빗살무늬 문양으로 포장된 규격형 종이박스를 전시장에 쏟아놓습니다.

개인이 시간을 해석하는 태도, 즉 시간관은 사람의 인식태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됩니다. 사람이 시간을 결정, 단절된 과거형으로 보는가 아니면 연속 개방형의 진행형으로 보는가는 그 사람의 정체성 인식과 미래에 대한 사고방식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작가 노재운의 '항성시 시리즈'는 우리가 시간을 구분하고 표기하는데 사용하는 태양력과는 달리 별로 시간을 정의하는 항성시력을 사용하여 자리 없이 떠도는 부재의 기억을 표기해주는 작업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작가는 기획자의 사적 기억에 부재 상태로 맴도는 빨치산 할아버지의 생물 연대를 항성시로 표기해 비석을 세워줍니다. 하지만 그 생물 연대 자체도 실제 생물 시기가 아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로 전해 들은 시점과 그의 시신도 없는 가묘를 확인하는 시점일 뿐입니다. 실제와 허구 사이 어딘가에 맴도는 허상 같은 '비존재'

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아야 하는 기억의 번지 없는 시간을 재설정해줌으로써 작가는 시간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그 파열의 틈에서 사라진 기억의 입자들이 살아나도록 해줍니다.

본 프로젝트는 시대정서에 대한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기획자들 간의 협업을 통해 동시다발적인 몇 개의 프로젝트로 구현됩니다. 기획협업 큐레이터 루벤 키한은 호주 시드니를 기반으로 한 지역 맥락 내에서 기획을 전개하여 《흠칠 수 없다면 태워라 *Burn what you can't steal*》라는 제목의 전시를 자그레브 소재 갤러리 노바, 시드니의 아트스페이스 등지에서 시리즈로 전개합니다. 이들과 본 프로젝트 《백지에서부터》는 문제의식으로 연결된 지역간 교류 시리즈로서 작가선정과 재원조성을 같이 도모하였습니다. 그 공통분모인 초대작가 임민욱의 작품은 따라서 《흠칠 수 없다면 태워라》와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릴 개인전에서 소개됩니다.

김희진 디렉터, 아트 스페이스 풀

Art Space Pool is pleased to introduce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exhibition "From Blank Pages" at the end of the last season in 2011. This project has emerged from a suggesting to read current confusion and uncertainty of the times as 'blank' which implicates varied sensible perspectives, such as devastation, collision, advent and vacuum. Throughout different responses and subversive aspects of eight artists, the exhibition explores these phases of the times. Co-curated by Heejin Kim (Director, Art Space Pool and Independent Curator) and Reuben Keehan (Curator, Contemporary Asian Art, QUEENSLAND ART GALLERY, Queensland, Australia), eight artists based in Seoul, Sydney and Berlin are invited.

The head start of 'blank' has initiated from a Korean poem written in early 1960s. "From Blank Pages" written by Korean poet Kim Su-yeong in 1962 expressed personal sensitivities of confusion, emotion and frustration as an entity living in such nation where was about to accelerate its economic status to move away from the developed country. During the time, there must be the extreme contrast between inferior futuristic vision and chaotic sense of freedom after the Korean War.

White paper turns pink and pink sky turns green and another color; it's so bright. But there was a warning that mixed-color is black from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 .

*A selection from the "From Blank Pages" (March 18, 1962)
by Kim Su-yeong (1921-1968)*

Revealing the pain and suffering on everyday reality which "weights heavily on the shoulder" and "pours headache", the poet after all, aspired the bright light "as such does not exist in the world." He finally found that there's this color that keeps changing in the brightness like blank pages and questioned about it; What light is it he witnessed? What possibility is it he tried to see for a concessive conquest? Has he refuted the statement, "mixed-color is black" from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 Or has he only reflected 'principled' himself? This project has started from these questions thrown by an intellectual lived in 1960s of Korea. And the question has still left over the

"blankness".

Up-rising by the April Revolution, the 1960s of South Korea is often remarked an era that demanded vast shift over the paradigm spirituality based on the notion of democracy. Just like the social pains arose everywhere in the past, there were also varied kinds of catastrophes and eschatological symptoms in the last year as if this civilization is getting through the last crisis coming to an end. There were several natural disasters and human calamities which could be interpreted as warning signs in different layers; the outbreak of foot-and-mouth disease in Korea, destruction of infected or potentially infected animals, earthquake, tsunami and nuclear plant explosion in Japan, several conspiracy theories for the eschatology and appearance of UFO, low birth rate, increase in suicide rates among young people, global financial crisis, etc. While our future is uncertain and ambiguous,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seems like incubating the chain of collusive ties between politicians and businessmen. Young people living in such contemporary society therefore they are just pushed ahead alongside the limitless competition without any clear vision about the future. Behind the hyper-action and self-destructive skepticism of the era, there are the psycho political depression and lethargic sensibilities, such as confusion, instability and fear about uncertain future. Remarking the expression of Kim Su-yeong, current turbid situation which is close to the "blackness", as refusing to have a vision yet, we rather question to ourselves if we could recover our subjectivity, desire and will to realize a vision. Aren't uncertain future and turbid reality collided at a dead end? Then, what vision can art suggests here?

Rather than presenting any specific answers about the abstract questions indicated above, in the "From Blank Pages", there are varied interpretations and responses of different artists, it is because the exhibition is for discovering a direction upon the varied opinions of artists, there aren't inflammatory nor curable aspect about the depression and confusion of the times. Interestingly, the invited artists in the "From Blank Pages" still tap the possibilities to establish the futuristic vision throughout individual practice and open mind. In their works, there are certain trials recovering the physical practice and the lost value.

In the exhibition, there are full of movements to extract the wild nature among confusion and crisis of the times. Donghee Koo, in her video, feels around the artificial pond to find the vein of water. Jung Yoon Suk watches young comers infiltrated an abandoned flood

pumping station, and there are noise performance based on the tools, voices and sounds collected from the site. Alicia Frankovich brings us a ballerina wriggling while lying down on the wooden floor. In another video projection next to the ballerina, there are two people wrestling against their shoulders each other. While the videos sit in close to create a dialogue, a performer who keeps jumping up and down comes into the exhibition space and produced the circulation, transition and restoration of kinetic energy.

A way to present practical exercise, Bona Park directly introduces how to make table, Kimbop(Korean Seaweed Rice Roll) and tablecloth, which creates clear action and shares specific information at an individual level. In her booklet, she shows the interviews with those experts from a carpenter's shop, a kimbop restaurant and a cloth repair shop, and provides their 'know-how' without any modification. This choice of artist relates to the attitude for arousing the value of information which is usually under-valued from an elite standard. Such practice also links to the way to dare oneself in this overflowing society. Table, Kimbop and tablecloth are very common elements which often appearing several social conventions such as exhibition opening. At the same time, they become the least necessities of our lives for fed, clad and housed.

In a way to conquer flurry sense of alienation and confusion against the physical environment where is unable to control individual sectors, the exhibition focuses on a few artists' conscious worlds. Deborah Kelly excavates the original motives from the heterotypic mythology and finds the primitive energy and parallel openness within. For a long time, the artist has collected and collaged nature images that have transferred as female motives in the Australian ethnic religion and females' bodily images, in a way of automatism. As a result, she has produced varied mysterious forms of lives. In the exhibition, there is the animation based on the collaged images of hybrid lives which make parades, fertilize, devour and create a carnival. The dystopian fantasy mixing human and nature reaches the extreme mixed-energy of anarchic animism with a sense of subversive liberation which ridicules the hierarchy of the nature.

Brook Andrew, designating comb shaped pattern from the tree at the shrine of Australian aborigines, has worked on the graphic installation inserting those patterns in between barriers of contemporary

contexts. There is such attitude and realization of the exotic and decorative sense as if they warn the commercialization of aboriginality. The standardized paper boxes wrapped by the comb shaped patterns are scattered and freely are piled up in the exhibition space.

Taking a thought of time or an attitude of constructing time must be decisive factor in one's self-awareness. The idea if one sees time as definite and separate past or as continuous present, must effect on the cognition on one's identity and way of thinking. Artist Rho Jae Oon takes the term 'Stardate' and talks about the 'cosmic' time concept. We can easily transform our time in the Gregorian calendar to the Stardate time with simple software on the internet. This series of works, 'Stardate' is for transcribing the absent memory. In this project, the artist borrows the private memory of curator about her grandfather who was a Korean partisan and whose 'being' remains to her only as uncertain numbers; the date when she first heard from her father that there was the grandfather and the other date when she finally encountered the empty tomb of her grandfather. From the 'presence-absence' wandering around somewhere in between the real and the fake, by re-establishing unaddressed time from her memory, the artist disassembles the fixed idea about time and tries to resurrect the particles of our memory which might disappeared in the time fractions.

This project, throughout the collaboration between two curators sharing the similar consciousness upon the spirit of the age, is going to be realized into a few different projects. Co-curator Reuben Keehan will continue the idea and context based on Sydney, Australia and introduces the exhibition entitled "*Burn what you can't steal*" in the Gallery Nova, Zagreb, Croatia and the ARTSPACE Sydney. In this inter-continental networking series, including the "*From Blank Pages*", co-curators have promoted the selection of artists and raised funds together. As a common mediator of all, the work by Minouk Lim will be introduced in the "*Burn what you can't steal*" and her solo exhibition at the ARTSPACE Sydney.

Heejin Kim Director, Art Space Pool

Translated by Jin Kwon

온 천지에 낭자한 이 색(色)의 정체

하얀 종이가 옥색으로, 다시 노란 하드롱지가 이 세상에 없는 빛으로 변한다. 색의 탈물질적인 변화가 공허한 것은 '시간'이 그 변화를 담보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나비모양(∞)'으로 무한계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위태로운 환각이다. 그것은 '사월의 햇빛' - 1960년 4월, 승리의 감각을 환기하는 바로 그 햇빛 - 이 제공하는 환각이지만, 이 땅의 색에 천착하는 명철한 역사의식과는 다른 것이다. 변화하고 있다는 몽환의 감각은 이곳을 딛고 나아가려는 신체와 정신의 건강한 욕구를 쉬이 달래준다. 위로해버린다. 빛의 잔치가 제공하는 그 초현실적 희열 안에서 병아리와 쥐의 역할과 의미는 해체되고 혼동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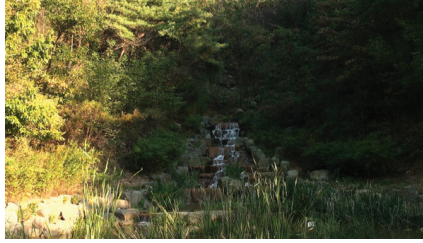
허나 이내 어깨 결림과 두통이 이 희열의 제자리걸음에 균열을 낸다. 어깨 결림과 두통은 시간이 흘러 발생한 자연스러운 '老朽' 늙어서 몸이 쇠함'의 탓이 아니다. 시간은 흘러가지 못한 채 '나비모양'으로 왕복운동만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그 통증은 '내가 나를 잊어 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이다. 위험을 알리는 징후다. 경고의 메시지이다. 메시지를 받은 신체가 목도하는 '시간'은 부유하기를 벗은 채 내려앉는다. '시간'은 다시금 '사월'을 필요로 하는 '삼월'의 구름이 된다.

내려앉은 시간은 우리를 빛 - 색의 희열로부터 고집어낸다. 다양한 색광 色光 이 혼색되었을 경우(가법혼색) 그 혼색은 백색을 띤다. 하지만 다양한 색안료 色顔料 를 혼색하였을 경우(감산혼색) 그 혼색은 흑색이다. 역사의 망각을 꿰뚫고 올라온 기억 속 '소학교 때 선생님'의 경고는 색의 근본인 빛이 아닌 색의 신체인 이 땅의 물질(안료)을 가리킨다. 이 경고를 유물론적 태도의 부활로 보는 것이 비약은 아니리라.

〈백지에서부터〉가 쓰여진 1962년은 어떤 의미에서는 '빛'과도 같은 '색'들이 낭자한 해였을 것이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발표되었고, KBS TV가 탄생하였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폐개혁이 있었다. 흥터 가득한 근대 한국사회는 어쭙잡게 이른바 '현대'로의 이행을 시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김수영 시인은 그 '빛'의 허구를 '안료'의 질척임으로 끌어내린다.

이 시가 환기하는 시대적 상황은 오늘날 교묘히 우리에게 강요되는 생의 조건에 중첩되어 보인다. (혹은, 위대한 예술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진실을 말해주는 지도 모른다.) 여하튼 정신을 차리기 힘든 세상이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생산되고 소비되는 스펙터클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자기망각의 고리를, 살췌, 씹워준다. 머리 위에서, 망막 위에서 쉼 새 없이 빛무리가 부숩진다. 더욱 더 가열차고 맹렬하게 온 천지에 낭자한 이 색(色)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백지에서부터〉의 화자처럼 몸으로 증명되는 증상들을 추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통증'을 망각치 않은 원시의 신체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이자, 환각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욕망을 복권하려는 시도일 것이다.

김동규 작가



구동희 Donghee Koo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의 물의 흐름을 탐지하여 액을 미리 면하거나 생활 입지조건을 따지기 위한 풍수에 대한 관습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믿음에서 시작되었을 것이지만 그 결과의 인과성은 객관적으로 반증할 수 없는 동양적 미증양속이며 유사지구과학에 의거할 것이다. 나는 역으로 인간이 조절, 가공해 놓아 물이 항상 노출되어있는 어찌 보면 수맥학에 의거하여 죽은 터일 수도 있는 산 위의 인공 연못에서 이 아름다운 관습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상태의 변화 속에 공간과 위치를 지각해가는 과정을 나타내고자 한다.

The traditional belief of Chinese geometric principle to detect the invisible water flow to prevent the future disaster or to settle the better living environments came from human anxiety of uncertain future. But the result of casualty of oriental morals doesn't have objectivity that can be proof and depended on earth science. I as an artist, explore the human made pond on a mountain that could be accorded as the death water flow to imitate the beautiful oriental behavioral through this process of my work.



구동희, 맥 아래에서, 2011,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5분, 촬영 김상돈
Donghee Koo, *Under the Vein*, 2011, HD video, color, sound, 5min, photo by Sangdon Kim



노재운, (좌) 파르티잔 33848.4-54477.4 항성시 시리즈, 2011, 철, 45x75x7cm (우) 스크린 사이즈, 2011, 알루미늄 봉, 투명 아크릴, 가변크기, 촬영 김상돈
 Rho Jae Oon, (left) *A Partisan 33848.4-54477.4 Stardate Series*, 2011, iron, 45x75x7cm (right) *Screen Sizes*, 2011, aluminum poles, acrylic panel, dimensions variable, photo by Sangdon Kim

노재운 Rho Jae Oon

백지는 이미 혼색 混色 이다
 은막은 이미 혼영 混泳 이다
 공터는 이미 메트로폴리스이다
 텅 빈 마음은 이미 제국이다

*Blank page has already mixed-colors.
 Silver screen has already mixed-shadows.
 Void is already a metropolis.
 Empty mind is already empire.*

〈스크린 사이즈〉는 지난 100년 동안 영화사를 통해 명멸했던 스크린 사이즈를 이용한 시리즈 작업이다. 이는 유, 무형의 온갖 형상으로 변형가능하며 과거를 현재화하는 작가 특유의 방식임과 동시에 상투적으로 상용되는 영화나 버추얼 리얼리티 등의 개념에 일종의 '판단중지'의 순간을 도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The '*Screen Sizes*' series is a body of works where I reexamine diverse screen sizes that have appeared and disappeared throughout 100 years of cinema history. The series can take many possible forms. This work is a personal way of transposing past to present to me, and a conceptual scheme as well to insert a moment of "judgment free" to cliché images and concepts of virtual reality reproduced in the cinema industry.

'항성시(恒星時 Stardate)'는 한 공상과학 드라마에 나오는 '우주적'인 시간개념을 작가가 차용한 것이다. 인터넷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시간(그레고리력)을 항성시로 변환할 수 있다.

'항성시'를 이용한 작업은 연작형태로 제작된다. 최초의 작업은 작가의 사적인 기억에 대한 것이었고 이번에 풀에 전시될 작업은 전시 기획자(김희진)의 기억과 관련이 있다. 그 기억은 생물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빨치산이었던 그녀의 할아버지에 대한 것이다. 그녀는 작가에게 자신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를 통해 처음으로 조부에 대해서 들었던 때와 또 어딘가에 조성된 가묘를 최초로 조우했던 때를 자신의 항성시로 제안했다.

이 작업에서 '항성시'는 그녀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의 인생에서 항상 '부재'로 '존재'했던 조부의 삶이 국군에게 포로로 잡힌 젊은 빨치산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어떤 '숭고한 삶'이었다는 것과 관련된다. 그 삶은 역사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특별히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며 단지 그 희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에게 의해 '소문'처럼 가족에게 전달되고 또 자손들에게 이어져 온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근, 현대사를 생각해보면 이 기억은 항상 금기처럼 이어져야만 했던-아니면 아예 사라져버린, 다른 수많은 비밀스런 기억들과 만난다.

"나에게 역사라는 건 "존재-부재"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있었던 것 같네요. 실제였다지만 얘기만 들은 거라 가짜 같고, 실재를 보고 있는데도 속이 빈 가묘처럼. 없다가도 나타나고, 나타났다가는 사라지는 아버지처럼. "존재-부재"가 수시로 교차하는 순간들 속에서 잠깐 "존재" 상태일 때 우연히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나는 실재감, 구체성에 그다지 명확성을 요구하다가도, 한 순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리감을 왔다갔다하곤 합니다." - 김희진

The term 'Stardate' is taken by artist Rho Jae Oon from the 'cosmic' time concept in a Space Opera. We can easily transform our time in the Gregorian calendar to the Stardate time with simple software on the internet. There are many holes in time, and the distinction between past-present-future does not mean something special in it. This freed the violence of our life, but there's another time zone which never disappears in a cosmic sense, rather than earthly one.

The 'Stardate' is a series of works which I started last year with the first edition. It was about my personal memory and the current one presented in this exhibit is about the memory of the curator, Heejin Kim. This memory is about her grandfather who was a Korean partisan, whose 'being' remains to her only as uncertain numbers ; the date when she first heard from her father that there was the grandfather who got executed in the 50s and the other date when she finally encountered the empty tomb of her grandfather. 33848.4 - 54477.4 is the stardate I present for her as the 2nd edition.

According to her statement, the 'stardate' is related to a kind of 'Sublime Life' of her grandfather who sacrificed his life to save young Korean partisans captured by ROK army. As with no official records of birth and death in history, his story was delivered by the survivors like a 'rumor', transferred to their family and has been transmitted to its descendents. I re-present her unarticulated memory of her grandfather in this work by which her memory is positioned to make an encounter with a lot of secret memories of 'Others' which have always been tabooed or deleted.

"History, to me, has always been there as 'presence-absence', just like two sides of the same coin. Presence is real, but feels unreal, because I only heard about it, like the empty tomb of my grandfather which is felt like a fake even though I see it in front of my eyes. Just like my father who used to suddenly appear and disappear at the same time throughout my life. I feel like myself popped out of some moment of pause between presence and absence that constantly intersect each other. That's why I've tried to pursue clear and concrete actuality all my life, but all of a sudden I feel myself suspended like a non-being in the air. - Heejin Kim



박보나, FREE Flight, 2011, 생산물 뒤에 가려진 생산자를 개별적 주체로서 드러내는 설명서, 테이블, 테이블 보, 김밥, 촬영 김상돈
 Bona Park, *FREE Flight*, 2011, Manual to Present Doers as Individual Subjectivities Latent Behind their Final Products, table, tablecloth, kimbob, photo by Sangdon Kim

박보나 Bona Park

『FREE Flight』은 생산물 뒤에 가려진 생산자를 개별적 주체로서 드러내는 설명서(매뉴얼)이다. 개인의 긍정적 가치에 주목하며, 생각하는 주체에 대해 희망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컴컴한 권력 구조 안에서 밝은 빛의 가능성을 찾아 보기 위한 시도이다. 개별적 주체들은 위와 아래, 그리고 처음과 끝도 없이, 유기적으로 평평하게 흩어져있다.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며, 숨을 죽인 채, 백지처럼 하얗게 앉아 있다.

‘행위자가 모든 행위에서 우선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그가 자연적 필요에서 행위하든 자유의지에서 행위하든 상관없이 자기 이미지의 현시이다. 따라서 모든 행위자는 행위하는 한, 행위 속에서 기쁨을 얻는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신의 존재를 원하고, 행위에서 행위자의 존재는 다소 강렬해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기쁨이 뒤따른다…… 그러므로 자신의 잠재적 자아를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행위는 행위가 아니다.’

- 단테 알리기에리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중 인용)

『*FREE Flight*』 is the manual to clarify the hidden producer behind the scene. Giving positive attention to the individuals and approaching active principals are valuable tries to find out the brightness out of the dark power structures in our society. Individual principals don't have starting or ending points and spread without structures. They are settled in white paper very quietly waiting for a new beginning.

For in every action what is primarily intended by the doer, whether he acts from natural necessity or out of free will, is the disclosure of his own image. Hence it comes about that every doer, in so far as he does, takes delight in doing; since everything that is desires its own being, and since in action the being of the doer is somehow intensi-fied, delight necessarily follows [...] Thus, nothing acts unless [by acting.] it makes patent its latent self.

— Dante Alighieri Quoted from ‘The Human Condition’ by Hannah Arendt



이길희님이 김밥을 싸는 법



10 HOW MR. KIM ROLLS A TABLE

이길희 씨가 김밥을 싸는 법을 소개하는 책의 10페이지. 이길희 씨가 김밥을 싸는 법을 소개하는 책의 10페이지. 이길희 씨가 김밥을 싸는 법을 소개하는 책의 10페이지.



11 MANUFACTURING TABLES

이길희 씨가 김밥을 싸는 법을 소개하는 책의 11페이지. 이길희 씨가 김밥을 싸는 법을 소개하는 책의 11페이지. 이길희 씨가 김밥을 싸는 법을 소개하는 책의 11페이지.



6 HOW MR. YANG SEWS A TABLECLOTH

이길희 씨가 김밥을 싸는 법을 소개하는 책의 6페이지. 이길희 씨가 김밥을 싸는 법을 소개하는 책의 6페이지. 이길희 씨가 김밥을 싸는 법을 소개하는 책의 6페이지.



7 MANUFACTURING TABLECLOTHS

이길희 씨가 김밥을 싸는 법을 소개하는 책의 7페이지. 이길희 씨가 김밥을 싸는 법을 소개하는 책의 7페이지. 이길희 씨가 김밥을 싸는 법을 소개하는 책의 7페이지.

박보나, 『FREE Flight』, 2011, 생산을 뒤에 가려진 생산자를 개별적 주체로서 드러내는 설명서, (위) 표지 페이지, 이길희님이 김밥을 싸는 방법, (왼쪽) 54-55쪽 김만호님이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 (오른쪽) 32-33쪽 양기상님이 테이블보를 만드는 방법 Bona Park, 『FREE Flight』, 2011, Manual to Present Doers as Individual Subjectivities Latent Behind their Final Products, (top) How Mrs. Lee rolls her kimbob, cover pages; (left) How Mr. Kim makes a table, p54-55; (right) How Mr. Yang sews a tablecloth, p33-34



정윤석, 사이렌 나이트, 2011, HD 비디오, 흑백, 엑스페리멘탈/스테레오, 20분 40초, 촬영 김상돈
 Jung Yoon Suk, *Siren Night*, 2011 HD video, black and white, experimental/ stereo, 20min 40sec, photo by Sangdon Kim

정윤석 Jung Yoon Suk

이번 작업에 함께 참여한 스크라벤탄츠(SklavenTanz)는 도시 공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신만의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한국에서 보기 드문 실천적 실험음악 프로젝트 그룹이다. 그들의 음악은 도시의 버려진 공간들을 사유하는 각자의 의문에서 출발한다. 스크라벤탄츠와의 만남이 나에게 인상적이었던 까닭은 그들의 음악이 의문에서 고민으로, 도시에 대한 반성에서 공간에 새로운 해석을 불러넣는 제의적 행위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에 공개될 〈사이렌 나이트〉의 경우 스크라벤탄츠의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버려진 도시 공간의 감각 구조를 새롭게 제안하며 동시에 형식을 담는 그릇으로서 영화의 가능성을 질문하고자 한다.

SklavenTanz is an experimental project group that involved in this project to actively intervene into the any city space to produce the unique sound of their own. Their sounds came from the individual questions of causes or reason of the abandoned places in cities. The reason why I was very interested in this project is their actions toward their questions becomes the imperial reinterpretation of the abandoned spaces. '*Siren Night*' is based on theme of SklavenTanz to propose the new sensual structure of the abandoned places of the cities and at the same time to observe the potential of if it could be motion pictures.





데보라 켈리, 비스틀리네스, 2011, HD 비디오 애니메이션, 컬러, 사운드 3분 17초, 촬영 김상돈
 Deborah Kelly, *Beastliness*, 2011, HD video animation, color, sound, 3min 17sec, photo by Sangdon Kim

데보라 켈리 Deborah Kelly

〈비스틀리네스〉는 내가 작업해 왔던 일련의 종이 콜라주 시리즈에 신나는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만든 4분 21초짜리 HD 비디오이다. 시와 생명과학에서 사용되는 여러 상징에 관심이 있던 차에 나는 이 작업에서 옛 민담에 담긴 고대 여성성의 원형들을 애니메이션으로 혼합하였다.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인간의 신체성과 문화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기적적인 잉태도 다반사가 되었고, 죽음도 지연되며 생물학도 더 이상 결정된 운명이 아니다. 나는 이 작업에서 신체에서 상상할 수 있는 많은 다양성을 지닌 수평적인 포스트-종들에 대해 판단을 보류한 채 경이로운 시선을 보내고자 한다. 왕성한 식욕을 지닌 신기한 포스트-종 생명체들이 머나먼 미래를 향해 탱고를 추며 나아간다.

'*Beastliness*' is a 4minute 21second high-definition video which brings to joyous life a series of paper-based collages. *Beastliness* continues the artist's ongoing exploration of the poetics and metaphors of biotechnologies through animation of ancient feminine archetypes from ancestral lore. In contemporary life, human physicality and culture have entirely transformed: miraculous conceptions are ordinary, death is deferred, biology is no longer destiny. The horizonless, post-species specific possibilities of the new life of the body are here subject to a sustained and wondering gaze as we tango into the far-fetched future, propelled by unchecked hungers.





브룩 앤드류, 파라다이스의 18개 인생, 2011, 카드보드 박스들에 프린트 된 아카이브 이미지, 가변크기, 촬영 김상돈

Brook Andrew, *18 Lives in Paradise*, 2011, a series of eighteen archival photo images screen-printed on cardboard boxes, dimensions variable, photo by Sangdon Kim

〈파라다이스의 18개 인생〉은 일시적으로 세워진 벽으로서 보호하거나 금지하기 위해 포함과 배제의 경계를 나누는 국경 또는 장벽을 대변한다. 변형 가능한 벽의 블록들은 미래와 과거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서 어떤 지표, 기념을 위한 묘비, 토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18개의 카드보드 박스들에 스크린-프린트된 이미지는 20세기 초반부터 중반의 엽서 이미지들의 조합으로, 도착민들에 대한 호기심을 보여주는 이국적인 사진들-서커스를 하는 모습, 먼 곳의 경치, 선교사나 군인들과 같은-의 구성을 통해 매혹적인 상징을 만들어낸다. 조합된 이미지들은, 짧은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식민지를 지배했던 자들의 호기심을 보여주는 도큐먼트로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양쪽 지역과 사람들의 재산, 자원, 노동과 즐거움을 보여줌으로써 원주민문화와 비-원주민문화가 상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

카드보드 박스들은 손에서 손으로, 관리자에게서 주인으로, 그 사이를 옮겨 다니는 익명의 수많은 컨테이너들을 담은 그릇으로써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화물을 보낼 때 쓰이는 박스들의 형태를 모방한다. 카드보드 박스들은 텅 비어있지만, 발견되고 포착되어왔던 것들에 대한 응시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

'18 Lives in Paradies' (the installation) takes form as a makeshift wall, representative of a barrier or border to demarcate the poles of inclusion and exclusion, functioning to protect or prohibit. In a reconfigured form, these blocks may also be read as a totem, a beacon to guide or an epitaph to commemorate; a way to look to the future, or to the past.

Comprising a series of eighteen images screen-printed on cardboard boxes, the various compositions create an alluring metaphor of what it is to construct a picture of exoticism; Sourced from found postcards, the images range from the early to mid twentieth century, representing a curiosity in indigenous people, circus acts and personalities, distant landscapes, missionaries and military servicemen. The images come together as an assemblage of oddities representing the collisional paths of indigenous and non-indigenous cultures; those being documented for curiosity and those of a dominant culture who have colonized, either briefly or permanently, both land and people for wealth, resources, labour and pleasure.

The boxes emulate the form and materiality of the commonplace courier box, utilized for transmitting of cargoes and resources from one location to another, these are vessels within which many anonymous contents shift between hands, between custodians, between owners. These blocks operate as signifiers of the gaze, referencing what has been discovered and captured, while their content remains vacuo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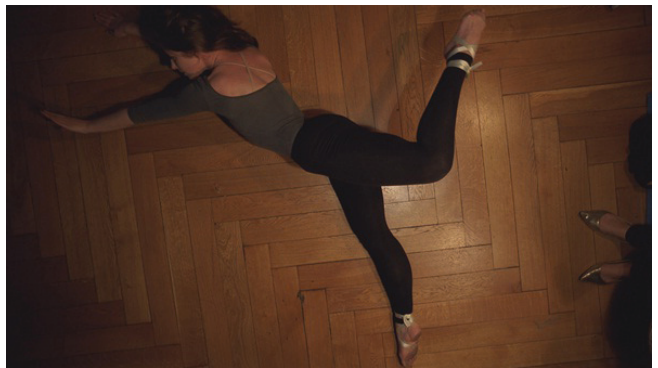


알리사 프랑코비취, (좌) 훈육되지 않은 몸들-발레리나, 2011, HD 비디오, 컬러, 3분 11초 (우) 들소, 2010, HD 비디오, 흑백, 사운드, 3분 11초, 촬영 김상돈
 Alicia Frankovich, (left) *Undisciplined Bodies; Ballerina*, 2011, HD video, color, 3min 11sec (right) *Bisons*, 2010, HD video, black and white, sound, 3min 11sec, photo by Sangdon Kim

알리사 프랑코비취 Alicia Frankovich

이번 《백지에서부터》에 소개되는 나의 작업 중 하나는 우선 <훈육되지 않은 신체들 : 발레리나>(2011)로, 필름으로 촬영된 작품을 소리 없는 컬러 비디오 프로젝션으로 투사한 작품이다. 이 작업에서 나는 한 명의 발레 무용수에게 일반적인 동작의 자유를 누릴 수 없이 마루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동작을 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 작품 옆에는 흑백 비디오 작품 '들소들'이 상영되는데, 그것은 내가 전시장을 '정복' 하려는 듯한 시도에서 관객들과 마치 럭비에서의 방어 스크럼처럼 일대일로 붙어보는 퍼포먼스이다. 세 번째 요소로 나는 '점프하는 조각'을 전시장에 들여놓는데, 이것은 다름아닌 실제 사람이다. 이 사람이 행하는 동작은 미친 듯이 움직여대는 나의 키네틱

My work in "From Blank Pages" comprises of a silent color video projection transferred from film titled 'Undisciplined Bodies; Ballerina' (2011) where I asked a ballerina to perform rudimentary movements whilst lying down on the wooden floor so as not to have normal freedom of movement. This work is shown against a black and white video projection 'Bisons' which is the outcome of a performance where I attempted to conquer gallery viewers in the mode of a rugby union 'scrum'. In the third component to my show, I will introduce a 'jumping sculpture' into the room – who is actually a young man. The choreography for this piece was developed from the repetitive movements from my kinetic sculptures that are mechanical and maniacal. The videos will sit in close



기계조각의 반복적 동작들에서 나온 것이다.
 이 두 편의 비디오는 서로 대화를 하듯이 가까이 배치될 것이며,
 이 때 '점프하는 조각'이 삽입되면서 3자 대화로 확장될 것이다.
 점프하는 실제 사람의 조각은 전시장의 관객과 눈을 맞추며
 밀착된 방식으로 갤러리 안에 삽입될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신체와 공간 간의 물리적 몸싸움과 행동에 내재된
 사회적 규범들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proximity to each other creating a dialogue, which then
 turns into a 3 way dialogue with the 'jumping sculpture'
 which will intervene in the space in close proximity to
 the viewers making direct eye contact and being a very
 physical intervention. In all of these works, behavioral
 norms are questioned as well as the physical tussle
 between bodies and space.

국제 호출 주파수 = 국제 목소리 모임

입에 과일 한 입이라도 물고서
많이들 오셔서 흥얼거리십시오
우리의 목소리가
공동의 주파수를 통해
수없이 침몰하는 말들을
불러내고 맞이하게 되길

아무렇지 않은 척, 미친 척, 조용히
누구나 그러하듯이,
내 한 몸, 친구들, 아이들, 노인들, 분필들,
물론 소리들
대환영입니다.

국제 호출 주파수는
멜로디의 예술, 중요하지 않은 예술
세계화된 지역어를 지지합니다.
사람을 믿는 집합, 감응의 연대,
가사없는 멜로디를 반복적으로 흥얼거리며
다수에게 호소합니다.
떠오른 새로운 현실에 호소합니다.
무위를, 긴 시간을, 시적인 날들을
지역적 상생을, 녹아버린 화폐를, 무상을
호소합니다.
자립과 의존, 고립과 재집합, 개별적 공존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이 노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흩어져있지만 불러 봅니다.
이 노래는 전복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실패의 상징도 아닙니다.
이 노래는 떨어져 있기에 그리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장소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
또는 한 날 한 시 숫자로 파악 안되는 시위대
99프로의 잠재적 조합을 위한 노래입니다.

International Calling Frequency= International Voice Gathering

Please, take a bite of juicy fruits and let's hum the melody
Let's bring up and welcome hidden voices under our
societies through the communal frequency

Quietly, insanely, casually
Like everybody does
I and myself, friends, kids seniors, chalks
Any sounds
Of course, everything is welcomed

International calling frequency is
Arts of Melody, an unimportant artistry
It supports globalized areal linguistics
Groups that believing in people, induced people's solidarities
Hum the melody without lyrics and it ardently appeals to us
It ardently appeals to up-rising reality
Idleness, long period of time, private times in a day
Local epigyny, melted currency, freedom

It respects and excepts
Independency and dependency
Isolation and reassemblage

This melody is not to gather people in a place
We are all separated but just hum the melody
This melody is not subversive
At the same time, this melody is not a symbol of failures
We hum because we miss you in distance
This melody is for people don't their own spaces
For un-countless demonstrators
For 99 percentage of latent unions

2 International calling frequency

17 f#m C# f#m C#

21 b m A C# f#

25 D A f#

29 D A E

D.S. al Fine

D.S. al Fine

임민옥, 국제호출주파수 2, 2011, 노래하는 퍼포먼스를 위한 악보. 작곡 임민옥, 이민휘
Minouk Lim, *International Calling Frequency 2*, a score for performance sing a melody, shared and composed by Minouk Lim, Minwhie Lee

〈국제 호출 주파수〉는 사라지는 장소, 추방되는 사람들을 기리는 마음에서 보내는 신호이자 특정 국가의 언어로 된 가사 없이 허밍으로 부르는 노래이다. 이 노래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비디오와 악보로 먼저 공유된 뒤, 2011년 8월 7일 6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카페 마리에서 함께 모여 배우면서 잠재적 노동조합을 위한 신호로써 불렀다. 이것은 하나의 같은 제스처, 같은 목소리는 없다는 의미로, 계속 변화하면서 증식되어가는 노래이자 플래쉬몹을 실험하는 일종의 안티 플래쉬몹을 위한 것이다. 집단 행진과는 다른, 일종의 '흩어진 밴드'가 부르는 노래로, 시위를 하기 전에도 하고 나서도 여전히 혼자인 우리를 위한 노래이다.

International Calling Frequency is a song without lyrics of any specific language. It operates as a signal to honor disappearing spaces and banished people. Sharing ahead of the melody through a social network system, people gathered as a latent union, learned and hummed the melody together on August 7th, 2011, 6pm, at the café Mari where is designated as a redevelopment place. This means that there is neither same gesture nor same voice, but only a song which constantly transforms and proliferates. This song is also for a kind of anti-flashmob targeting to experiment flashmob. *International Calling Frequency* is a song sung by a 'dispersed band' as well as for us, as a member of demonstration marching group, who are alone before and after marches.



《백지에서부터: 작가와의 대화》, 2011. 10. 21 촬영 김상돈
From Blank Pages : Artists Talk, Oct. 21. 2011, photo by Sangdon Kim



임흥순, 사자 아카이브, 2011, 김성주 시인의 주황색과 녹색(1947-)

Im Heung-soon, Archive of the Death, 2011, poet Kim Sung Joo's Orange and Green(1947-)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의 색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뒤섞이면 탁해집니다. 흑색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모두가 죽어요. 그래서 고민한 게 그 중간색이 뭘까 고민해봤죠. 주황과 녹색이 그 중간색이라고 생각해요. 이 색을 만들려면 노란색이 필요하죠. 그 노란색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고 있어요.”



주재환, 험기증 시리즈 #28, 2011, 사진, 피그먼트 프린트, 30x44cm
 Joo Jaehwan, Dizziness Series #28, 2011, photograph, pigment print, 30x44cm



주재환, 험기증 시리즈 #03, 2011, 사진, 피그먼트 프린트, 52x100cm
 Joo Jaehwan, Dizziness Series #03, 2011, photograph, pigment print, 52x100 cm

구동희 Donghee Koo

Based in Seoul

SOLO EXHIBITIONS

2012 Donghee Koo, Doosan gallery, New York, U.S.A. (upcoming) : 2008 Synthetic Experience, Atelier Hermes, Seoul, Korea : 2006 Disturbance, Arario Seoul, Seoul, Korea : 2005 The Day Off The Duty Free, Akademie Schloss Solitude, Stuttgart, Germany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1 Countdown, Seoul Culture Station 284, Seoul, Korea ; Secret Societies, to know, to dare, to will, to keep silence, CAPC- musée d'art contemporain de Bordeaux, Bordeaux, France ; Secret Societies, to know, to dare, to will, to keep silence, Schirn Kunsthalle, Frankfurt, Germany; Vidéo et après, Ondes et flux, Centre Pompidou, Paris, France ; Space Study, Plateau, Seoul, Korea ; Physical Video, Queensland Art Gallery , Gallery of Modern Art, Brisbane, Australia ; Closer to Contemporary Art,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Gyeonggi-do, Korea : 2010 The Last summer, Gallery JungMiSo, Seoul, Korea ; Courage, Contemporary Art from Fondazione Sandretto Re Rebaudengo, Aosta, Centro Saint-Bénin, Italy ; Platform Seoul 2010 Projected Image, Artsonje Center, Seoul, Korea ; The Trickster,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Gyeonggi-do, Korea ; Busan Biennale 2010, Living in Evolution, Busan Museum of Art, Busan, Korea ; Oblique Strategies, Kukje Gallery, Seoul, Korea ; Adelaide International 2010, Apart we are together, Anne & Gordon Samstag Museum of Art, Adelaide, Australia : 2009 Text@Media Fest, Paralanguage: Patient Control, Seoul Art Space-Seokyo, Seoul, Korea ; The 1st Off & Free Film Festival, Korean Film Archive Cinematheque KOFA, Seoul, Korea ; Life in Hyper Real, Samsung D-Light gallery, Seoul, Korea ; Video:Vide&O, Arko Museum, Seoul, Korea ; Double Fantasy, Marugame Genichiro-Inokuma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gawa, Japan ; Text@Media Fest, Paralanguage: Patient Control, Moonji Cultural Institute, Seoul, Korea ; Magnetic Power, Coreana Museum of Art, Space C, Seoul, Korea ; 100 Daehangro, Arko Museum, Seoul, Korea

노재운 Rho Jae Oon

Based in Seoul

SOLO EXHIBITIONS

2006 Black Gold in Switzerland, Alternative Space Pool, Seoul, Korea : 2004 Skin of South Korea, Insa Art Space,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9 Joburg Art Fair, Sandton Convention Centre, Johannesburg, South Africa ; The Cinematic Montage,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 2008 Meditation Biennale, Old Printing House, Poznan, Poland ; JeonHyangGi, Alternative Space Pool, Seoul, Korea ; The Points Of the Compas, Sala de Arte Publico Siqueiros, Mexico City, Mexico ; A Walk to Remember, A Walk to Envision, Insa Art Space, Seoul, Korea, New Museum of Contemporary Art, New York, U.S.A ; Close to You, Gallery 27, Gyeon Univ. Anyang, Korea : 2007 Counterpoint, Bund 18, Shanghai, China ; APA P2007 Anyang Public Art Project, Anyang, Korea ; Beyond Art Festival, Deajeon Museum of Art, Daejeon, Korea ; City Fables, Eco-technical Muzeum, Prague ; Activating Korea: Tides of Collective Action, Govett-Brewster Art, New Zealand

박보나 Bona Park

Based in Seoul

SOLO EXHIBITIONS

2011 X reverse, Pingpong art space, Taipei, Taiwan : 2009 X2, The Room (the project space in Total Museum), Seoul, Korea : 2005 Ya project 01 - Park, Bona, gallery Ga, Seoul, Korea : 2003 Eraser head, gallery 126,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1 EMAF (Ewha Media Art Festival),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Michelangelo Pistoletto band @ Incheon, Korea (collaborated with Eunji Cho), Space Beam, Incheon, Korea ; Hit and Run, random public places in Seoul, Korea ; Live Ammo,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MOCA) Taipei, Taiwan : 2010 Island - Gyeonggi Creation Center local collaboration project, Gyeonggi Creation Center, Ahnsan, Korea ; Pong-dang, Gyeonggi Creation Center, Ahnsan, Korea ; Conceal from your eye, Bastero, Andoain, Spain ; Cooperation, not Corporation, ITS-Z1, International Test Site, Ritopek, Serbia ; 123 Band Performance, Concrete Island opening, Okin collective, gallery Takeout Drawing, Seoul, Korea ; Real Estate Box Empty SeongamIsland 123(collaboration project with Eunji Cho), Seongam Island, Ahnsan, Korea ; Residency Parade,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 Out of line, space Hamilton, Seoul, Korea ; Novel 01: in search of Junhon Lee, gallery Takeout Drawing, Seoul, Korea : 2009 Flexible Aura, Brain Factory, Seoul, Korea ; Unidee in Progress, Cittadellarte-Fondazione Pistoletto, Biella, Italy ; Jamais-vu, H.Forman & Son event hall, London, UK - 2009 Hackney Wicked Festival: 2008 Visual vocabulary : between image and word, the Gallery in Wilsden Green Library, London, UK

정윤석 Jung Yoon Suk

Based in Seoul

SOLO EXHIBITIONS

2009 88, Kumho Museum of Art,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1 Closer to Contemporary Art,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 10th songeun art prize, Songeun Art Space : Platform Seoul 2010 Projected Image, Artsonje Center, Seoul, Korea : 2009 City net Asia, Seoul Museum of Art, Seoul ; Platform in KIMUSA, Seoul : 2008 Cine Forum4, Museum of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SEMA 2008, Seoul Museum of Art, Seoul ; Me, tropolis in Sub-Way-World Dukwon Gallery, Seoul : 2007 Insa Art Space Cat's Cradle' Kyungwon Univ. K-ART Gallery : 2006 Wake up! Andy Warhol, Gallery SSamji, Seoul, Korea

SCREENING

2011 37th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Seoul : 2010 29th VANCOUVER INTERNATIONAL FILM FESTIVAL. V Vancouver, Canada : 2009 1st Off&Fre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2008 2nd Cinema Digital Seoul, Seoul, Korea ; 2008 EXIS(Experimental Film&Video Festival in Seoul), Seoul, Korea ; 26th VANCOUVER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 Dragons &Tigers series, Vancouver, Canada

데보라 켈리 Deborah Kelly

Based in Sydney

SOLO EXHIBITIONS

2011 Make More Monsters Artspace, Sydney, Australia : 2010 Tender Cuts Gallery Barry Keldoulis, Sydney Australia : 2009 Contemporary Art Centre of South Australia, Adelaide Big Butch Billboard, Australian Centre for Photography, Sydney, Australia : 2007 Knicker Knot, Gallery Barry Keldoulis, Sydney Boas to boots : queer trade union histories, Unions NSW, Trades Hall Atrium, Sydney, Australia : 2006 Hey, hetero! (with Tina Fiveash) Q Gallery, Glasgow : 2002 Meeting a Terrorist, (installation) Casula Powerhouse, Sydney, Australia : 2001 Hey, hetero! (with Tina Fiveash), Performance Space, Sydney, Australia : 1993 Millennium, Platform Gallery, Melbourne, Australi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1 Hong Kong Art Fair Hong Kong Awfully Wonderful new work commission for Performance Space, Sydney, Australia ; LIFE 2.0: artifice to synthesis Royal Institute of Science, Adelaide Paradise, it's a hell of a place Anna Pappas Gallery, Melbourne, Australia : 2010 The Book of Revolutions/ El Muro de Libro, Expo Guanajuato Bicentenario, Mexico ; National Works on Paper Award Mornington Peninsula Regional Gallery, Victoria, Australia ; Love Never Dies (with Tina Fiveash) Form + Content Gallery, Minneapolis, USA ; An das Gerät! Halle 14, Baumwollspinnerei, Leipzig, and Galerie ACC Weimar, Germany ; Hurry-Hurry radical printmaking survey, Cross Art Projects, Sydney, Australia : 2009 The Sea is History, John Hope Franklin Center Gallery, Duke University, North Carolina USA ; (in boat-people.org) 649Serial Space Gallery, Sydney, Australia ; Screengrab : International new media art award exhibition, James Cook University Gallery Townsville Fisher's Ghost art award exhibition, Campbelltown Arts Centre

브룩 앤드류 Brook Andrew

Based in Sydney

SOLO EXHIBITIONS

2011 Paradise, Tolarno Galleries, Melbourne ; 18 Lives in Paradise (the installation) Artspace, Sydney ; The Cell, MONA FOMA Festival of Music and Art, Hobart Govett Brewster, New Zealand Perth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Perth : 2010 The Cell. Sherman Contemporary Art Foundation, Sydney Institute of Modern Art, Brisbane : 2009 Danger Of Authority Tolarno Galleries, Melbourne; 8 Months At War DETACHED, Hobart & University of Queensland Art Museum, Brisbane, Australia ; The Island, UQ Art Museum, Brisbane, Australia : 2008 THEME-PARK, AAMU The Netherlands The Island, Museum of Archeology and Anthropology, Cambridge, UK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1 Local Memory Carlton Brewery, Central Park, Sydney, Australia ; 10 ways to look at the past,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Melbourne, Australia ; Text (as) Image Level 17 Artspace, Victoria University, Melbourne, Australia ; TELL ME TELL ME : AUSTRALIAN AND KOREAN ART 1976-2011, MCA, Sydney, Australia, and MOCA, Seoul, Korea ; Looking at Looking,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Melbourne, Australia ; An Archival Impulse Plimsoil Gallery, University of Tasmania, Hobart, Australia : 2010 21st Century : Art in the First Decade, Gallery of Modern Art, Brisbane, Australia ; 17th Biennale of Sydney, Sydney, Australia ; GRAND NORD GRAND SUD Artistes inuit et aborigines, Musée de L'Abbaye de Daoulas in co-production with Musée des Confluences, Lyon, France ; Curious Colony, a twenty first century Wunderkammer, Newcastle Regional Art Gallery, NSW, Australia ; 100 Years : Highlights from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rt Collection, Brisbane, Australia ; Stick it! Collage in Australian art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Melbourne, Australia

알리샤 프랑코비취 Alicia Frankovich

Based in Berlin

SOLO EXHIBITIONS

2011 Gestures, Splits and Annulations, Künstlerhaus Bethanien, Berlin: 2010 Effigies, curated by Aaron Kriesler, Dunedin Public Art Gallery, NZ ; A Plane for Behavers, curated by Emma Bugden, ARTSPACE, Auckland, NZ; Super Segue, curated by Reuben Keehan, ARTSPACE, Sydney, Australia

GROUP EXHIBITIONS

2011 Floor Resistance, Hebbel Am Ufer, HAU 3, Berlin (performance) ; Undisciplined Bodies ; an Evening Dissolving Social and Spatial Conventions, Salon Populaire, Berlin (performance) ; Floor Resistance in Davide Savorani's The Green Room, curated by Chiara Agnello and Roberta Tenconi, C/O, Milan (performance) ; If Sameness is in the centre then difference is on the periphery, Starkwhite, Auckland, NZ : 2010 The 4th Auckland Triennale, Last Ride in a Hot Air Balloon, curated by Natasha Conland, Auckland City Art Gallery, NZ ; NEW010, curated by Hannah Mathews, Australian Centre for Contemporary Art, Melbourne, Australia ; Cracker #1 Performance Festival, Self Service open art space, Stuttgart, Germany (performance) ; HaVE A LoOk! HAVe a Look! FormContent, London ; The Unofficial Nobel Peace Prize Internet Exhibition, curated by Alejandra Salinas and Aeron Bergman; Still Vast Reserves, curated by Emily Cormack, Alexie Glass and Chris Sharp, Gertrude Contemporary Art Spaces, Melbourne, Australia; Time/lapse, curated by Andrea Bell, Screen Space, Perth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Australia and Square 2 Screen Space, City Gallery Wellington, NZ

임민욱 Minouk Lim

Based in Seoul

SOLO EXHIBITIONS

2011 Perspective, Freer/Sakler Gallery_Smithsonian Museum, Washington D.C, U.S.A ; Liquide Commune, PKM Gallery, Seoul, Korea ; FireCliff 2, Festival BOM, Baek and Jang Theatre of National Theatre Company of Korea, Seoul, Korea : 2010 FireCliff 1, Art is Action=Action is Production, A project for La Tabacalera, Madrid, Spain ; Horn and Tail, Gallery Plant, Seoul, Korea ; 2009 S.O.S-Adoptive Dissensus, Festival BOM, Seoul, Korea : 2008 Jump Cut, ArtSonje Center, Seoul, Korea : 2000 Subjective Neighbors, Insa Art Space, Seoul, Korea

GROUP EXHIBITIONS

2011 Countdown, Culture Station Seoul 284 (Former Seoul Station), Seoul, Korea ; Burn What You Cannot Steal, Gallery NOVA, Zagreb, Croatia ; City Within the City, ArtSonje Center, Seoul, Korea ; Hit&Run Project, Myungdong Cafe Mari Front Liberation, Seoul, Korea : 2010 Touched, Liverpool Biennial, FACT, Liverpool, U.K ; Platform Projected Image, Art Hall, ArtSonje Center, Seoul, Korea ; Media City Seoul Trust, Gyeonghuigung SeMA, Seoul, Korea ; Random Access, Nam June Paik Art Center, Yongin, Korea ; Move on Asia, Para/Site Art Space, Hong Kong ; A Different Similarity, Bochum Museum, Bochum, Germany : 2009 Unconquered, Museo Tamayo Arte Contemporaneo, Mexico ; Peppermint Candy-Contemporary Art from Korea,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 2008 7th Gwangju Biennale Annual Report, On the road, Gwangju, Korea : 2007 Tina.B_The Prague Contemporary Art Festival, Prague, Czech ; Anyang Public Art Project, Anyang, Korea ; 10th International Istanbul Biennial, Turkey ; City net Asia,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 Something Mr.C can't have...,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KOEX, Seoul, Korea ; The 7th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Seoul, Korea

2011 풀 프로덕션

2011 Pool Production

백지에서부터

From Blank Pages

2011, 10, 21 - 11, 30

October 21 - November 30, 2011

구동희 노재운 박보나 임민욱 정윤석 데보라 켈리 브룩 앤드류 알리샤 프랑코비취

Brook Andrew Alicia Frankovich Deborah Kelly Jung Yoon Suk Donghee Koo

Minouk Lim Bona Park Rho Jae Oon

작가와와의 대화 2011, 10, 21, 금 오후 5시 아트 스페이스 풀

Artist talk Friday, October 21, 2011, 5PM Art Space Pool

- 기획 총괄 김희진 루벤 키한
- 공간연출 서영호, 홍태림
- 촬영 김상돈
- 통·번역 권진, 홍의영
- 캐이터링 윤보라
- 디자인 조지은
- 퍼포먼스 전건우
- 인턴 구보명

아트 스페이스 풀 www.altpool.org

아트스페이스 www.artspace.org.au

작가 임민욱의 작업은 기획연계전시 《훔칠 수 없다면 태워라》(2011, 12, 5 - 2012, 2, 28 갤러리 노바, 자그레브)에서 소개됩니다.

Minouk Lim's presentation only happens at the exhibition "Burn what you cannot steal"(Dec. 5. 2011 - Feb. 28. 2012) in Gallery Nova, Zagreb.



풀 약도

